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세계평화의 문 활짝 열어



18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에서 각국 전·현직 대통령, 종교지도자, 여성·청년지도자 등 3백여 명의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화실천의 법제화 가능성 확인, 종교대통합 위한 실천방안 도출 등 성과

대한민국에서 열린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대표 이만희) 주최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DPCW)의 법제화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1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첫 개최한 9.18 평화 만국회의는 올해 4주년을 맞아 '평화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 DPCW를 통한 평화 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개막돼 해외 주요인사 2천 명을 포함해 국내외 25만 명이 참여해 19일까지 진행됐다.

HWPL과 국제법 관련 세계적 권위자 21명이 만든 DPCW는 10조8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선언문의 내용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세계 전쟁 원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서를 통한 종교대통합'을 실천할 방안을 찾는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의 토론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HWPL-발트흑해이사회, 고성평화회담 개최 '전쟁종식평화' 공동합의문 발표



16일에는 사전행사로 경기 가평군 HWPL 평화연수원에서 HWPL과 동유럽 국가수반들로 구성된 발트흑해 이사회가 '고성 평화 회담'을 열고 지구촌 전쟁종식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과 HWPL이 발표한 DPCW를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HWPL과 발트흑해 이사회는 회담 후 '고성 평화 회담 후속 합의문'에 서명하고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한반도와 발트 흑해 지역 나아가 전 세계 평화 실현 유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국제법 컨퍼런스 개최



17일 열린 '2018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국제법 제정 컨퍼런스'에서는 평화를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HWPL과 칼리즈 레그미 네팔 전 총리, 레오니드 크라브죽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스티페 메시치 크로아티아 전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법조, 교육, 언론, 종교, 청년, 여성 단체 등 1천여 명이 'DPCW 10조 38항'의 지지를 촉구하는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지지 결의문'을 발표했다.